

▶ IT와 건설의 만남, 산업융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

- 대한건설협회 5만여 건설사 대상 건설자재 구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보증 공동협력 -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건설사의 원활한 건설자재 공급을 위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와 손잡고 전자상거래 보증을 통한 건설사의 유동성지원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시공사는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건설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콘스몰(건설협회 자회사)에서 건설자재 가격합리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동구매 사업 관련 건설원자재 공동구매 시 전자산업진흥회의 전자상거래보증 연계를 통해 건설협회 회원사 및 5만 여개의 건설사의 건설자재 구매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설시공에 필요한 건설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09년 1월 기업금융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IT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은 물론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 우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IT+건설+금융' 융합서비스는 물론 IT산업과 건설 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관련분야의 정보교류는 물론 건설 산업분야에 첨단 IT기술 적용을 통한 융합시장 창출과 산업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KEA-JEMA 전자·IT 교류회



KEA(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JEMA(일본전기공업회)는 지난 11월25일(목) 본회 12층 회의실에서 제3회 'KEA-JEMA 전자·IT 교류회' 를 개최하였다.

KEA와 JEMA는 2008년 교류협력 MOU 체결 이후, 연1회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제2회 교류회가 JEMA(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KEA(서울)에서 제3회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 'KEA-JEMA 전자·IT 교류회' 는 본회의 전상헌 부회장, JEMA의 하야노 토시미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전산업, Green IT 프로젝트와 에너지효율제도, PL 및 소비자안전제도 부문에 대하여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다. 양기관은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현황과 전자·IT산업의 동향, 환경규제 등의 최근 이슈와 추진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KEA 전상헌 부회장은 IT강국 한국과 전통적인 전자강국 일본이 이러한 교류회를 통해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공동 대응체제 수립 등에 협력함으로써 양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전자·IT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JEMA의 하야노 토시미 전무이사는 양 기관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정기 교류회 외에 세부 부문별 교류 및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2011년 제4회 'KEA-JEMA 전자·IT 교류회' 는 일본 JEM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EA 산업표준센터 TBT(무역기술장벽) 현황 과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표준센터는 지난 11월 11일 대구에서 TBT(무역기술장벽)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기술 규제 대응 지방 순회설명회' 및 개별기업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각국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TBT중앙사무국에서 신규 기술규제를 해당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TBT의 중요성, IT산업의 글로벌 환경과 에너지 규제 동향, 국제환경규제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TBT중앙사무국 서비스 활용, EU-REACH 대응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설명회에서 고려대 강병구 교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들 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절차 및 정부와의 협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우리 기업, 특히 모든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수입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피해나가고, 이들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EU, 미국, 일본 등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이 환경규제에 의한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날 상담에서는 EU REACH제도와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동 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추후 등록절차에 대한 상담과 중소기업들의 TBT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출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 파악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 EU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기술표준원 TBT중앙사무국 관계자는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수출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의 활용 방법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애로를 해결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TBT중앙사무국의 지원서비스 이용을 당부하였다.

TBT 중앙사무국은 언어 및 전문적 분석능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주요한 해외 기술규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TBT 자동경보서비스"와 우리 기업들의 TBT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EA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성과보고회 개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부회장 전상헌)는 12. 1일(수) 18:00 63빌딩에서 국회의원, KBS등 방송사와 방송장비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성과 보고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09.5월)”에 의거 추진한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R&D” 성과물 전시와 더불어 그 간의 추진실적 보고가 있었으며,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 국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예결위), 전해숙 의원(문방위), 전병현 의원(문방위)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방송장비 산업인들을 격려했다.

* 09~10년간 수요자 연계형 R&D로 개발중인 (주)답스 등 20여개 업체가 방송장비 성과물 전시에 참여
이번 성과보고를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수요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R&D를 추진하여, Exciter 등 6개 과제는 1년만에 약 80억원의 매출이 발생 하였으며, 현재 장비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인 제품이 내년에 본격적인 상용제품으로 출시할 경우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09년 추경예산 140억원으로 25개과제 지원, 5개과제 개발완료, 20개과제는 연말에 개발완료 예정

